

# INTERNI

& D e c o r



**HAVE A TASTE OF i Saloni 2014**

디림건축사사무소

(주)진영코리아

G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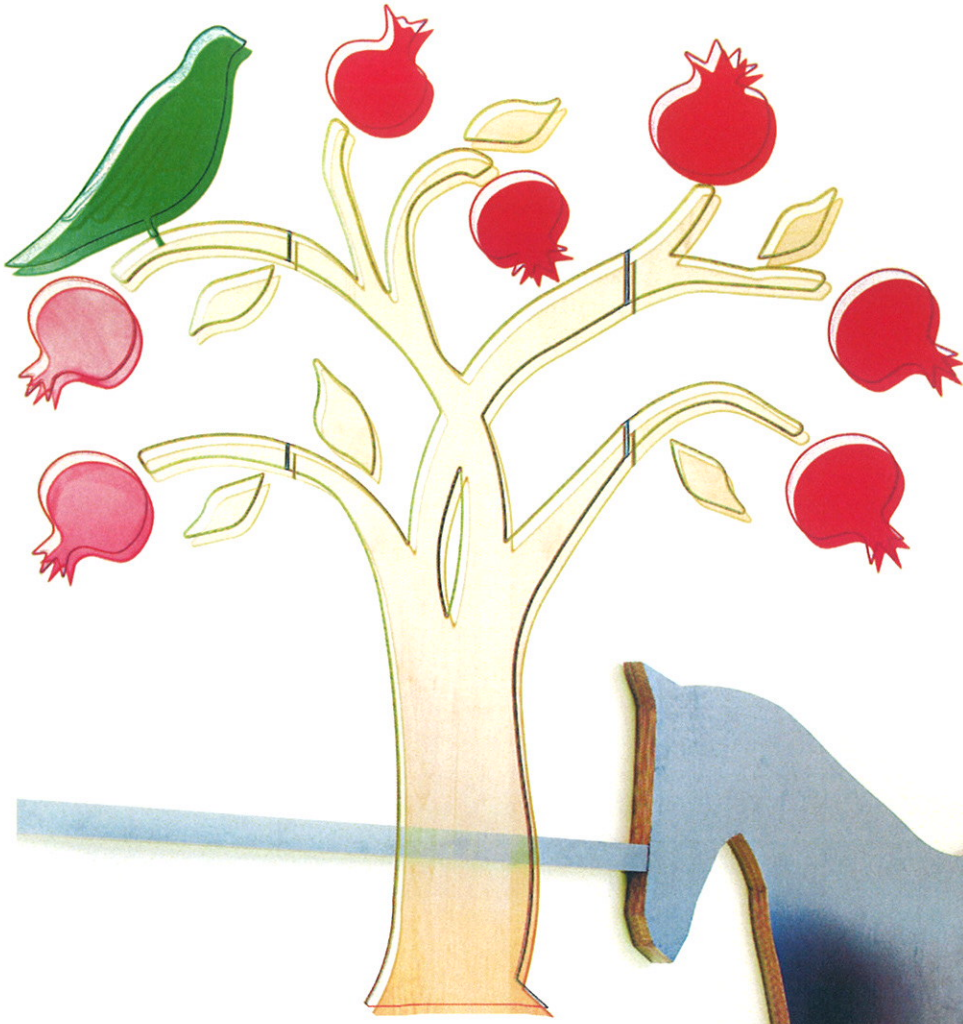
(주)세이어쏘시에이트

MAY. 2014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오감만족 교육공간 프로젝트

MAIN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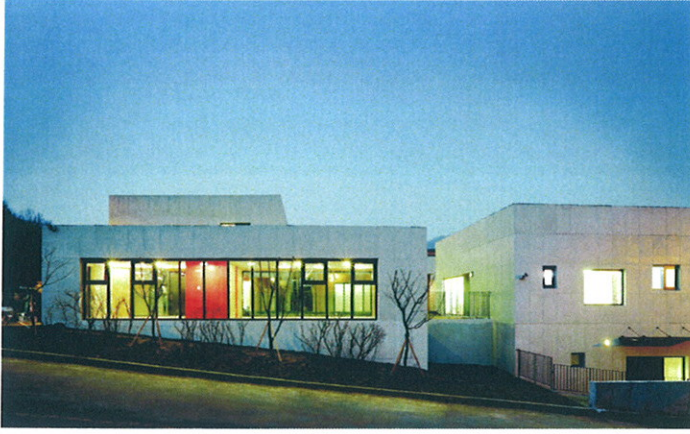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오감만족

## 교육공간 프로젝트

취재 김민자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반가운 5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동심을 다독이는 국내의 교육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내 아이를 위한 밝은 미래를 그려보자.



# 교육공간 프로젝트



마음껏 뛰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미래에 대한 암묵적인 부모의 불안때문에 학원, 시험 등으로 점철된 요즘 아이들의 스케줄을 따라가 보면 어른 못지않게 바쁜 일상을 소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혹은 친구와의 정서적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년시절, 답답한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 칠판과 씨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리모델링이 시급한 낙후된 학교 건물이나 충전연색을 버무린 유치원과 학원이 교육공간의 기본 공식처럼 활용되는데, 최근 컬러테라피를 통한 학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지능을 자극하며 '학교=즐거움 공간'이라는 미약하게나마 인식전환을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기반으로 '아이들은 어떤 공간을 좋아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국내의 교육공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단편적인 성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전 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꿈꿔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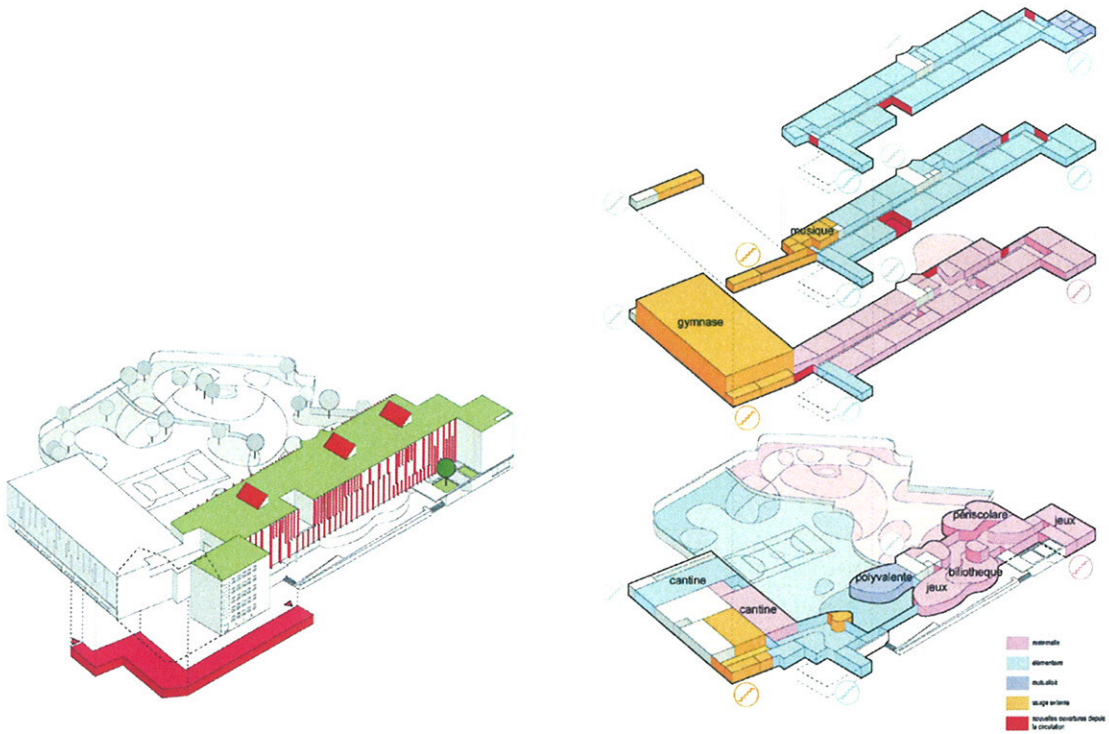
60년대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한 Groupe Scolaire Saint Jean.

# Groupe Scolaire Saint Jean

프랑스 Strasbourg 지역에 자리한 Groupe Scolaire Saint Jean은 60년대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의 공용공간을 시작으로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을 구성한 8,731㎡ 규모의 교육공간이다. 내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축가의 의도에 부합하고자 색채의 시각적 대비, 자유분방한 곡선을 사용하여 공간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부여하며, 이에 긴 복도를 따라 일렬로 배치된 교실의 경우 자칫 지루한 인상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컬러 배색과 적절한 빛의 활용을 통해 다이내믹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학교 앞 나지막하게 자리한 언덕과 모래밭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



Architect / Dominique Coulon et associés  
 Project Team / Dominique Coulon, Benjamin Rocchi, Sarah Brebbia, Olivier Nicollas,  
 Delphine George, Guillaume Wittmann  
 Building Contractor / SNRB, VOLLMER, BONNARDEL, LUSO, ART MANIAC, REZZA, FORET  
 Location / Strasbourg, France  
 Area / 8,731m<sup>2</sup>  
 Photography / Guillaume Wittmann, David Romero-Uzeda



대지를 감싸는 듯한 형태의 1차 구조를 띤 건물.



컬러의 과감한 분할 및 대비를 이뤄 공간 내 강렬한 인상을 형성한다.



날선 직선 대신 유연한 곡선을 활용해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부여한다.



1층의 공용공간과 연결된 입구.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소재를 가져와 아트막한 벤치를 완성했다.

Groupe Scolaire Saint Jean

먼저 외관은 한낮의 강렬한 태양빛을 차단하기 위해 수직 패널 칸막이를 설치해 파사드를 이루는데, 환기에 용이하도록 별도의 개구부를 마련했으며 이와 대조적인 평평한 지붕면은 태양광 발전 패널을 두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아이들이 뛰노는 안마당은 아트막한 언덕과 모래 놀이터, 그린 및 옐로 컬러를 입힌 바닥면을 구성해 활력 넘치는 야외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입구를 가로지르는 캐노피는 날씨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는다.



평평한 지붕면으로는 교육공간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옐로 컬러를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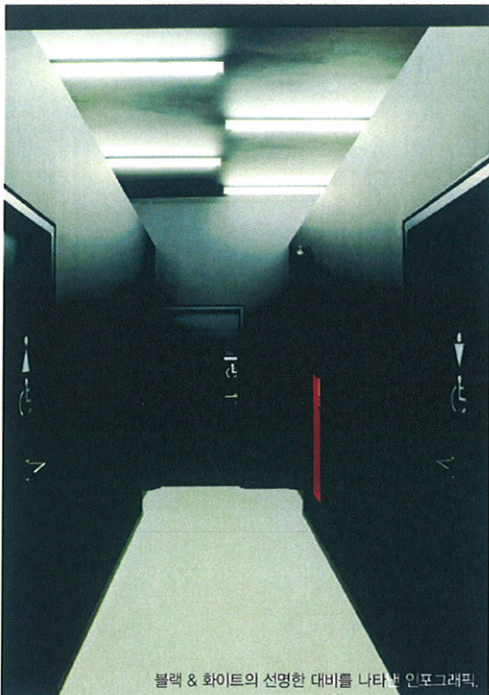


4면을 핑크 컬러로 마감한 복도.



아이들의 옷, 가방, 소지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

총 4층으로 구성된 실내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특히 핑크, 옐로, 레드 등 비비드한 컬러를 덧입혀 액티브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중 실내 체육관의 경우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조명을 배치하여 균일한 빛을 형성해주며, 짙은 청록색으로 바닥면을 마감해 한층 안정감을 전한다. 한편, 각각의 교실을 잇는 복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다른 컬러를 순차적으로 매치하여 입체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편, 1층의 공용공간과 2층의 다목적홀 및 게임공간 등에 적용된 부드러운 곡선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충분한 행복감을 선사하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며,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블랙 & 화이트의 선명한 대비를 나타낸 인포그래픽.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조명을 배치하여 균일한 빛을 형성해주는 체육관.





각각의 교실을 잇는 복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다른 컬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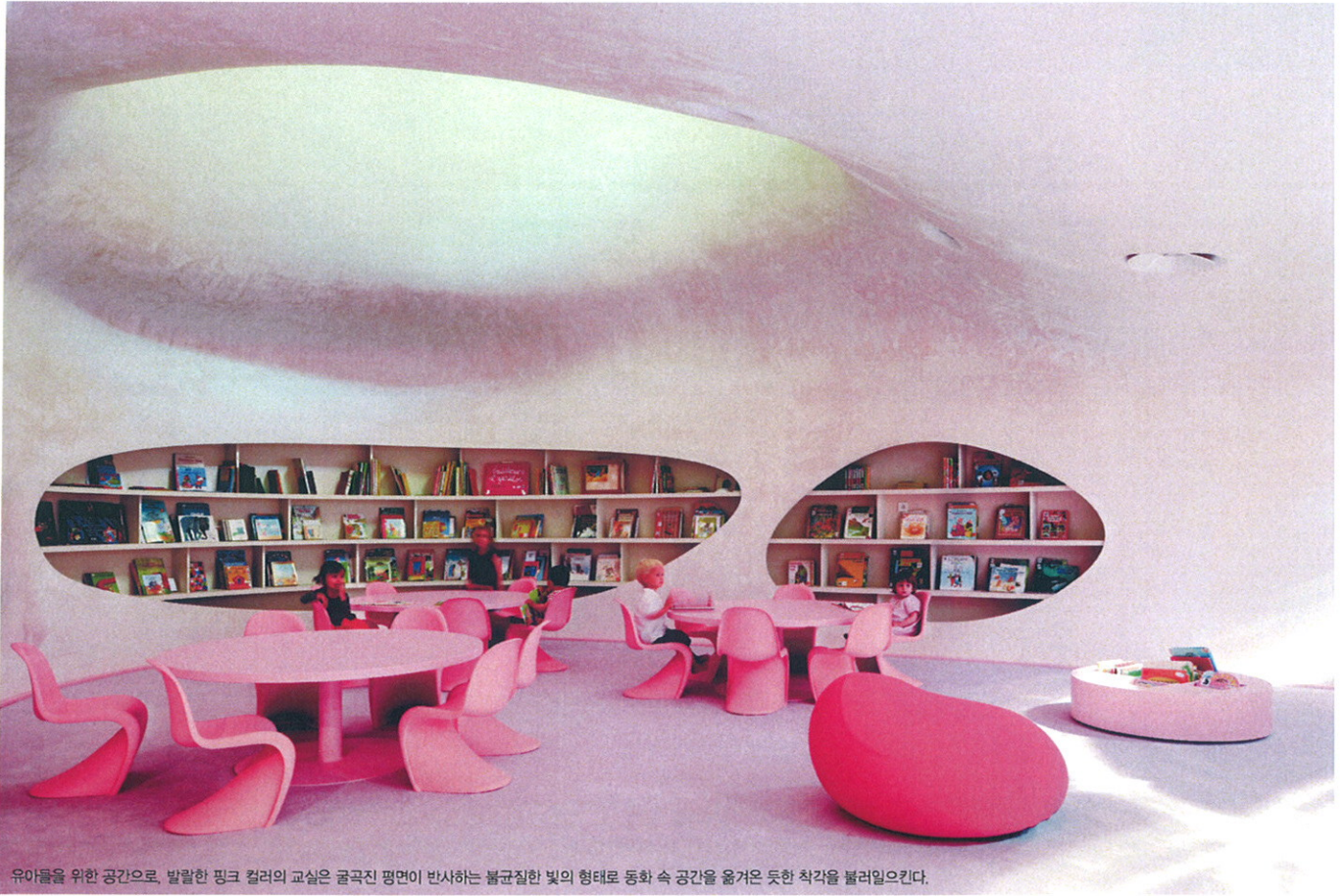
Groupe Scolaire Saint Jean



강렬한 레드 컬러로 마감된 식당의 바닥면.



한낮의 강렬한 햇살을 차단하기 위해 수직 패널을 적용했다.



유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발랄한 핑크 컬러의 교실은 굴곡진 평면이 반사하는 불균질한 빛의 형태로 동화 속 공간을 옮겨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비정형적인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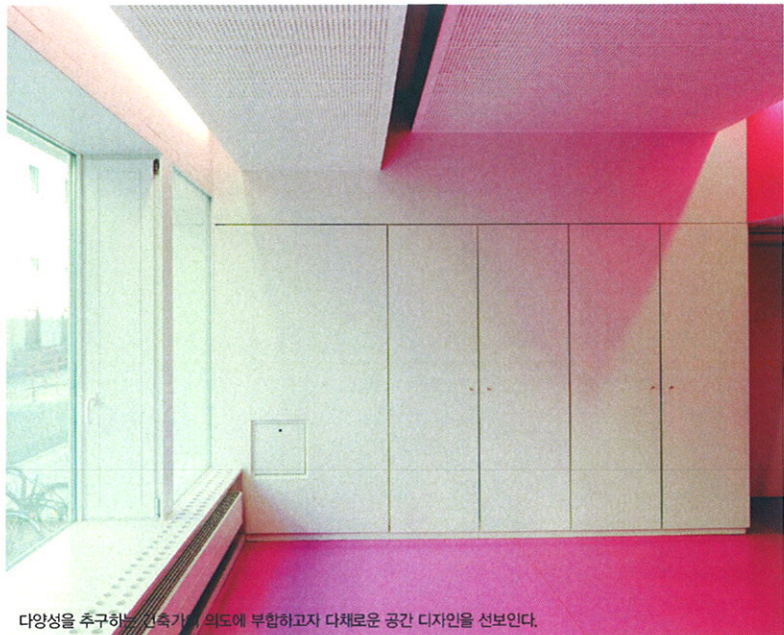
작은 틈으로 새어 들어온 빛은 공간 내 무작위적인 패턴을 만들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상기시킨다.



단순한 형태와 다채로운 컬러 미감을 접목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그 가운데 유아들을 위한 발달한 핑크 컬러의 교실은 조약돌 형태의 둥그스름한 소파, 굴곡진 평면이 반사하는 불균질한 빛의 형태, 비정형적인 서재로 동화 속 공간을 그대로 옮겨온 듯 한데, 바이올렛, 진분홍빛, 라이트한 핑크 등 명도와 채도를 달리한 핑크 컬러의 배열을 이뤄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세라도 빨려들어 갈듯 유기적인 고갈 형태의 천장은 자연광을 받아들여 공간 내 빛의 무작위적인 패턴을 만들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Groupe Scolaire Saint Jean은 단순한 형태의 외관 속에 숨겨진 획기적인 컬러 마감과 기하학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거리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축가 의도에 부합하고자 다채로운 공간 디자인을 선보인다.